

가정 예배 모범

- 2020_10_25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0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해주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새 힘 얻으리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시편 35:1-18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시인이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0절)?

시인은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향해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요동하며 그를 집어 삼키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되 내이며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 앞에 놓인 가장 작은 어려움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9, 18절)?

악인의 비난 속에서 시인은 다른 재판관과 제사장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그의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참된 정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